

# 미래 먹거리 견인·현안 사업 해결 '척척'

▶ 최경식 시장의 포부



**민** 선 8기 최경식 남원시장이 7월 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최 시장은 지난 1년간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온 것은 물론, 1천여 공직자와 함께 분야별 현안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원 미래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았다. 그 결과 역대 최대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으로 획기적인 지역 발전 도모, 외부 시정평가 결과 80건 수상·인센티브 17억원 확보, 촉촉한 출산·보육·교육·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정주환경 개선 등 민선 8기 남원시정 변화를 성과로 이끌며 신성장동력사업을 통해 남원의 미래먹거리를 견인하고, 각종 현안 사업을 척척 해결하는 등 시정을 변화시키고 있어 관심이 집중 시민과 함께 이룬 남원 민선 8기 1년을 짊어본다. /편집자 주

### ▲역대 최대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

최 시장이 가장 먼저 사활을 건 것은 대규모 공모사업 발굴과 선정으로, 지난 1년간 부처 문턱이 닳도록 행보를 벌인 것은 물론, 전방위적인 예산행보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요전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489억원) △지역활력타운(220억원) △농촌협약(387억원) △SW 미래채움센터 구축사업(96억원), 스마트 시티솔루션 확산사업(40억원) △대곡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406억원), 주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396억원) 등 총 89건 공모사업에 선정, 2,513억의 예산을 확보, 전년 동기 대비 1,503억원(67%↑) 늘어난 예산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추동력을 만들었다.

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 ▲본예산 1조원 시대 개막

민선8기 최경식 남원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가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보하면서 남원시 첫 본 예산 1조원 시대로 열었다. 전략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 시장은 지난해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에 남원시 국가예산전략센터 를 개소하고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2022년 1,704억원에서 2023년 1,781억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4.5% 증가, 남원시 사상 첫 본예산 1조원대를 돌파하면서 1조 284억원 규모(6.7%↑)를 편성할 수 있었다.

실제로, 최 시장은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전북도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 차례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지난 4월 20일 전북도 평가, 5월 15일 현장평가, 5월 31일 발표평가에 직접 참석해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등 사업 추진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해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전국 시·군·구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북 최초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지난 1년간 SW 미래채움센터 구축사업 등 총 89건 공모 선정 지역발전 견인 새 추동력 만들어

매니메스토 공약이행 최우수 등 외부 시정평가 결과 80건 수상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 추진 지역 최대 현안 서남대 문제 해결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국비 확보 시, 본 예산 1조원 시대 문 열어

FAI 월드 드론레이싱 유치 남원 드론산업 육성 첫 결실

### ▲외부 시정평가 결과 80건 수상

남원시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지자체 최초 대통령 표창 △한국매니메스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 평가 최우수 기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총 80건을 수상, 17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특히, 공약 이행에 따른 최우수(SA)평가는 전문성과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메스토 평가단에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226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이행도를 토대로 갖춤성 민주시정 투명성, 공약이행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다.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추진을 위한



FAI 드론레이싱 유치 협약

### ▲글로벌 아트도시 기틀 마련

민선 8기 남원시정에서는 문화와 관광이 그 도시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자 도시의 또 다른 경쟁력을 인식,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동안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기틀 마련에도 매진해왔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5월 11일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가야고 분군 세계유산 '등재권고'를 통해 남원 유곡리·두라리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 됐고, 물결이 머무는 고요한 곳이라는 뜻을 지닌 '할파우'에 남원 지역민의 특색을 살리고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남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을 활용, 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3,000여㎡ 규모의 할파우 아트벨리도 조성하게 됐다.

▲국내 최초 2023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국제대회 유치

무엇보다 민선 8기 남원시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는 바로 남원 드론 산업이다. 실제로 최경식 시장은 정부가 미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드론산업'을 포함시키고 관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하자 그 대열에 합류, 민선 8기 남원시의 미래먹거리로 '드론산업'을 선택, '드론 산업도시 남원'을 표방하며 남원시를 드론·UAM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결실이 민선 8기 첫해 전국 최초로 유치한 FAI월드 드론 챔피언십(이하 챔피언십) 대회다. 국비(3억원) 및 도비(5억원)확보하는 성과도 이뤄 대내외 위상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챔피언십은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New Wonders Namwon!'을 컨셉으로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개최, 드론레이싱 부분의 최고권위 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에는 40여 개국의 500여명의 선수들과 산업관계자 1,000명 등이 집결, 8,000만명 이상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 먹거리 발굴

민선 8기 남원시정에서는 지난 1년간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발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2023 시군연구고산업 육성사업 선정 (12억원)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곤충산업 클러스터 마스터플랜도 수립하

## 더 큰 미래 완성, 시민 중심 시정 펼치는데 더 집중

최경식 시장은 민선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한마음 한뜻으로 남원발전의 열망과 신뢰를 보여 준 시민들과 그 여정에 함께해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1년이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초석을 다진 시기였다면,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은 열심히 뿌려놓은 씨앗들을 거두고, 성과로 이어 완성하는 데 힘을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1년간 펼쳐온 시정에서 남원의 무한한 가능성과 공직자들의 잠재력을 또 한번 발견한 만큼, 앞으로의 1

"지난 1년동안 펼쳐온 시정서 무한한 가능성 또 한번 발견

2년 차부터는 지역의 미래발전 앞당기기 위해 일하는 성과중심 조직 완성"

년은 더 큰 남원의 미래를 완성하고, 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펼치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를 위해 2년 차부터는 남원의 미래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일하는 성과중심의 조직을 완성하고, 지역활력타운, 가족유전자원부지 문제 해소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생활인구 유치 정주인구 증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방문 국비 확보 총력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 추진



도민체전 개막식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협약

고 있다. 특히 곤충산업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에서 생산된 곤충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 소재 개발 미꾸리 양식 사료 개발 등 R&D 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창업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에서 지난해부터 곤충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허림을 비롯한 10개 산·학·연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곤충산업발전 및 곤충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부지 선정 △관련 조례개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200억 규모의 곤충 거점단지 공모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선진농업 육성 및 정주환경 개선

시에서는 지난 1년간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 자금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고, 금융특례지원 확대도 대출가능액도 25억에서 55억원

으로 상향한 바 있다. 또한 원푸드(백향파) 재배기술 정립 및 시제품 개발, 남원형 스마트팜(세미) 조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 가금 마련 등 선진농촌민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 △인재확충 △남원시립 청소년예술단 창단 △예체능 특기생 육성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운영 등을 통해 다 같이 잘 사는 남원만들기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원정출산을 막는 '남원공공산후조리원' 추진과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공모사업' 선정 등은 인구소멸에 대응,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한 방책으로, 남원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인구소멸도시에서 빛어지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최 시장의 41개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솔루션으로, 시에서는 현재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IT팀도 꾸려서 오는

25년까지 남원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완료, 25년 연내 개소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에 선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3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6.6억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SW)교육 거점센터 구축△전문강사 양성 △소프트웨어(SW)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소프트웨어(SW)교육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SW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여기에 조례 제정 등을 통한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지원, 지난 1년간 8,500가구를 방문, 읍면동장 1일 1가구 소동행정으로 복지사 각지대 해소는 물론, 특히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해 임대주택도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증액하는 등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